

#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확장 이전 추진

###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와 협의 광역 환승체계 구축 철도 허브 도약 복합개발로 지역 성장 동력 마련

익산시가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호남 철도 중심지로의 도약에 나선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철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 철도운영 전략'과 '일반열차 운행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일반열차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전기열차(EMU

-150)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고속화 전략에 따라 고속열차는 200km 이상 장거리, 일반열차는 200km 미만 중·단거리를 운행하며 거점역에서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연계 환승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호남권 거점역인 익산역을 중심으로 일반열차의 출발 및 도착 역의 용산-익산, 익산-목포, 익산-여수엑스포 등으로의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 또 익산역을 거점으로 하는 일반열차의 운행 횟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차량기지 확장 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익산역이 광역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철도차량기지 이전으로 확보되는 철도 부지

9만9000여㎡ 공간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시행해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철도교통망의 허브로 도약하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철도차량기지가 성공적으로 이전되고 광역 환승체계가 구축되면 전북 대도시권 형성을 위한 교통 연계체계 마련은 물론 유라시아 국제철도 거점역 수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철도 교통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역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KTX익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은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마련하고 사업 실현성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이 전북 1000리길 3코스를 완주하면 인증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탬프투어를 시행한다. 훈몽재부터 김병로생가, 낙덕정까지 6km 구간의 '선비의길'. <순창군 제공>

## 순창군 '전북 1000리길 스탬프 투어' 시행

### 완주 통합인증서·기념품 제공

순창군이 '전북 1000리길 스탬프 투어'를 선보인다. 전북 1000리길은 전북 14개 시·군의 걷기 좋은 길들 중 명품길 총 44개 구간이다. 순창에서는 강천산길, 장군목길, 선비의길 등 3개 길에 포함됐다. 투어는 각 코스 인증지점에 설치된 우체통에서 코스별 도장을 수집해 날인해 군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집은 우체통에 보관돼 있어 필요한만큼 꺼내 쓸 수 있다. 6월부터는 수집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북 천리길' 앱을 설치해 안내판에 있는 NFC태그를 찍어 온라인으로 인증할 수 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이와 함께 전북 44개 코스를 완주할 경우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통합인증서 및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다. 강천산길은 강천산군립공원 입구부터 병풍폭포, 강천사, 구장군폭포로 갔다 돌아오는 코스로 2시간30분가량 소요된다. 선비의길은 훈몽재를 시작해 김병로생가, 낙덕정까지 6km다. 장군목길은 구미교부터 마실속박단지, 요강바위를 거쳐 다시 구미교로 돌아오는 9km 코스다. 이 구간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어 라이더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순창군 관계자는 "전북 1000리길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도 챙기고 완주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읍시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정읍형 푸드플랜' 구축 나선다

### 먹거리 종합계획 용역착수 보고회 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추진

정읍시가 안전·건강 먹거리 보장을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에 나섰다. 11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의 용역에 착수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 시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축산·식품부의 국정과제사업이다.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바른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지난 7일 용역착수보고회에서는 지역 내 분야별 먹거리 실태조사, 과업 수행 일정 및 민관참여 거버넌스 구축·운영 계획, 푸드플랜 종합계획 및 전략별 실행계획 수립 방안 등이 제시됐고 공감대가 형성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시는 앞으로 학교(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



지난 7일 정읍시청 2층 대강당에서 유진섭 시장과 농협, 로컬푸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해 매월 민관 거버넌스 회의와 분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최적의 푸드플랜을 수립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중·소농 위주의 지역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11억여원 투입 축산악취 저감사업

남원시가 다양한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통해 축산악취 줄이기에 나섰다. 11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한우사육을 비롯해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올해만 총 11억6300만원을 투입하는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 이를 위해 ▲악취방지약품 지원 3억6000만원 ▲축산악취 개선 4억원 ▲악취저감인계분무시설 1억2000만원 ▲축산환경개선 4000만원 ▲축분고

속발효시설지원 1억5700만원 ▲퇴비발효촉진지원 7400만원 ▲축산환경 컨설팅 1200만원 등을 책정했다. 특히 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만 치중된 축산농가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여 주민 생활불편



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창군, 중기맞춤형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금리 4% 이내 보전 환경개선·지식재산창출 등도 지원

고창군이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고창군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맞춤형 지원사업 등 분야별 지원 사업을 추진해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자액을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금리도 4%이내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복지편의 개선사업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와 낙후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 맵과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지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전년도 물류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길환 고창군 상생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에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와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